

개인적특성 요인, 환경적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박지선*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이우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대학 전공 분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협소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그들의 창업의지를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등 4개 지역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SPSS 22.0을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과 환경적 특성(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등)을 확인하고,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의 조절 효과 양상에 대해 파악하면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중 어느 쪽에 더 깊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창업 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결부시켜 그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

1. 서론

최근 청년실업문제는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공식 실업률 집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5년간 대한민국 전체 공식 실업률은 평균 3.0%에서 3.4% 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30대의 청년실업률은 7.2%에서 8.1%로서 전체 공식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고용동향, 2011~2015). 또한, 2011년 연령별 공식 실업률과 실질실업률의 차이를 조사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으로 구분되는 15세~29세의 경우 공식실업률 7.6%에 실질실업률 21.9%로서 타 연령층 대비 큰 차이를 보이며 청년실업에 대한 체감 심각성이 더욱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더욱이 향후 실업률 전망을 예상한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대한상공회의소, 2015) 2015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하였고, 수급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청년창업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며(유봉호, 2013), 창업교육 또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올바른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청년실업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2015).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 홍정표(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전공 분야 중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창업의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전공학과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0331sunny@naver.com

** drlee@kookmin.ac.kr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창업은 과정상 수 많은 난관을 겪게 되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잠재적 창업가, 즉 대학생들은 마음속으로는 창업을 찬성하지만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환경 조건이 창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엄의, 2014). 이에 본 연구는 예체능 계열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육창환, 전인오(2014)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은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런 실현가능성의 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라 하였다. 문화, 관광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최명길과 박은주(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교육만족도, 인지된 욕구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장수덕과 이재훈(2014)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창업선도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개인적 가치관 등 심리적 특성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중요한 부분 중 소속된 전공의 교수와 전반적인 학과 운영 방식으로부터 창업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양동우, 유연호, 2008 / 최종열, 정해주, 2008). 즉, 지도하는 전공 교수들이 창의적인 사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기업가 정신, 새로운 사업 수행 등을 강조할수록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학과에서의 창업 관련 행사 및 창업한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창업정보 등의 제공은 대학생들h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동장창, 2012). 결국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창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환경적 특성과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서 창업의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분야별로 개별적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대상이 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를 함께 포괄하고 있으며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 요인 및 환경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계에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요인의 조절효과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의 4개 지역 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술 관련 학과에서의 잠재적 창업자

들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안과 교육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하며 나아가 예술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배경

2.1 창업요인과 창업의지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일컬어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라고 한다. 창업의지는 조직고용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자영업(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이며(Bird, 1988), 사업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일반적인 계획을 포함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Crant, 1996; Krueger, et, al. 2000; Bae, Qian, et, al. 2014). 창업의지는 창업 초기의 색깔과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중심 역할을 한다(이지우, 2000; Bird, 1988). 또한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창업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박시사, 강성일, 2007).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업자이며 창업자의 특성은 개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Ardichvili, et, al. 2003).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연구는 주로 위험감수성(Risk Taking), 성취욕구(Achievement), 내적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일관되지 않게 정리되고 있으며 각 연구자들에 따라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잠재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창업을 인식하는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과 환경적 특성(네트워크 환경,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경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2.1.1 개인적 특성

2.1.1.1 개성취욕구(Achievement)

성취욕구는 잠재적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 하나로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는 변수로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컫는다(Haney, 1992). McClelland(1962)의 주장에 따르면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개인적 책임을 전제로 문제해결책을 도출

하려고 하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청소년들의 성취욕구와 관련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뒤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성취욕구가 창업가적 선택을 유발한다고 해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강한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이 창업가가 될 확률이 높으며, 성취욕구가 창업가적 행동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Johnson(1990)은 성취욕구, 창업관련 행동, 성향과의 관계를 다룬 23개의 실증연구 결과를 다시 종합적으로 재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통해 성취욕구, 창업관련 행동, 성향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연우와 반성식(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높은 기준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향상된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경주에 몰두한다고 하였다. 창업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육창환, 전인오, 2014).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을 밝히고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와 관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창업동기 요인 중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남수, 2012). 따라서 잠재적 창업가인 예술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성취욕구가 그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1.1.2 위험감수성

McClelland(1962)에 따르면 잠재적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 하나인 위험감수성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하게 대처하는 정도로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Kuratko & Hodgetts(2000)는 창업가가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극단적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는 중간 정도의 위험 혹은 예측과 계산이 가능한 위험들을 감수하며 성과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영선(2015)의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감수성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들을 감수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보여주는 특성으로서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1.1.3 혁신성

혁신성은 잠재적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개방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지니면서, 새로운 사업 개척 및 조직을 신설하고 이끌어가는 혁신적 태도를 말한다. 송영수(2010)에 의하면 혁신성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혁신성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혁신성은 기존에 있는 자원이 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윤현덕, 성중수, 2011), 서리빈(2010)의 연구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배익건(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발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동기가 강해지고, 창업동기가 강할수록 창업의지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 지향성 중 혁신성과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이 향상되는 연구결과를 보여줬다(이재석, 이상명, 2015). 따라서 잠재적 창업가인 예술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2. 환경적 특성

창업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창업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Green-berger & Sexton, 1988).

2.2.1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환경이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력의 존재이다(Carsrud, Gaglio, & Olm, 1987; Gnyawali & Fogel, 1994). Manning, et. al.(1989)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세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지원과 동기부여, 사례와 역할 모델, 전문적 조언과 상담, 기회, 정보, 및 자원으로의 접근을 들었다.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업과정 상에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도달하기 위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부터 타 사업자 및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진하게 된다. 사회,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해 실증 연구를 진행한 유연호, 양동우(2008)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환경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 윤방섭(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네트워크 환경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창업가인 예술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네트워크 환경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2.2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예비 창업자는 최종적으로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Gnyawali & Fogel(1994)에 의하면 신규 벤처기업 창업에 있어 환경적 요인인 정부정책 및 절차와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축적된 지식 및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창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서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촉진시키며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김영선, 2015). 이운준, 정기철, 장병렬 & 나청호(2013)의 연구에서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창업업종과 각 지역 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창업자들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반응 또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예술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정부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2.3 경기상황

창업률과 취업률은 부(-)적 관계에 있으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취업률이 낮아져서 창업률이 높아진다(이주현, 2008).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Gray(1990)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성공적인 창업에 대한 기대치가 향상되어 창업률이 증대되고, 경기가 악화될수록 잠재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창업률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 잠재 창업자의 창업 초기 경기상황은 해당 시기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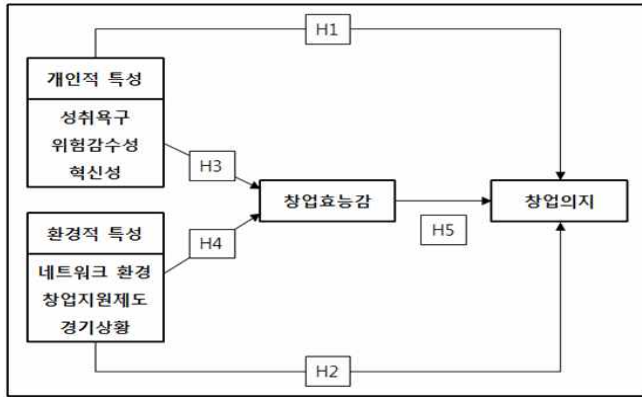
2.3 창업효능감

Bandura(1977)는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행동을 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포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Folkman &

Lazarus, 1984). Bandura(2001)는 사회적 인지론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노력과 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동기를 부여하고 향상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경향의 개인차이가 아니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과업 의존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업의지를 규명하는데 유용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 창업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ruger & Brazeal(1994)은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들었고 김미숙과 김영국(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중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 즉, 내재적통제위치가 상위이며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대학에서 창업과 관련된 정책과 방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때 잠재 창업가들의 창업의지가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창업교육 및 대학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잠재 창업가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개개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인적인 역량 개발이 창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으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건축설계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개인의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이지우(2000)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개인의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오상훈과 하규수(2013)는 잠재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해 전제하였을 때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창업가의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며 그것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은지(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요인인 위험감수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잠재적 창업가인 예술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따라 창업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창업효능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의 설정



<그림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 두 개의 요인들이 창업효능감에 따라 활동력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독립변수로서 잠재적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요인(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혁신성)과 환경적 특성 요인(네트워크 환경,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경기 상황), 조절 변수로서 창업효능감(자기효능감),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창업의지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창업특성 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가설 1: 잠재적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잠재적 창업자의 환경적 특성 요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관계

가설 3: 창업효능감은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지 사이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창업효능감은 환경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지 사이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 22(1), 121-146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 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산학경영학회, 17(2), 89-110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

구: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유연호, 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김혜선(2010). 대학생 성격유형(MBTI) 및 직업 유형에 따른 창업의지와 의 관계. 한국벤처창업학회, 5(2), 89-114
 정용희, 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15(4), 41-53
 이우진(2013). 대학생의 직업 선택 동기가 창업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8(3), 113-124.
 이재석, 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한국벤처창업학회, 10(3), 61-74
 김영선(2015).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나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육창환, 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집, 14(10), 661-676
 이은지(2015).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가 창업성공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Folkman, S., & Lazarus, R.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1.
 Haney, W. V.(1992).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ext and cases(6th ed.), Boston: Richard D. Irwin, Inc.
 Kusatko, D. F. & Hodgertts, R. M(2000). Effective Small Business Management, 7th Edition. Mishawaka: Better World Books.
 McClellnad, D. C.(1962). Business drive and national achievement. Harvad Business Review, 40(4), 99-112.
 Ronstadt, R. C.(1984). Entrepreneurship, Dover. MA: Lord.